자본시장연구원 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 **보 도 자 료**	보고서명	**IFRS 18 도입에 따른 영업이익 개념 변화와 제도적 대응과제**
	문의	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(02-3771-0643, sangholy@kcmi.re.kr)

○ IFRS 18 도입에 따라 기업 실적을 판단하는 '영업이익' 기준이 2027년부터 달라짐

— 국제회계기준위원회(IASB)는 손익을 영업・투자・재무 범주로 구분하고, 투자・재무 범주에 속하지 않는 잔여 항목을 영업이익으로 정의하는 IFRS 18을 2027년부터 적용할 예정

— 이는 주된 영업활동의 판단에 기초한 **기존 K-IFRS 영업이익***과 **금액 및 성격이 모두 다르며, 이에 따라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**이 있음

* 매출액 – 매출원가 – 판매비및관리비

○ 투자자에게 유용한 K-IFRS 영업이익의 활용이 더 이상 어려워질 가능성

— 현행 K-IFRS 영업이익은 경상적 수익성과 기업 본연의 수익 창출력을 반영하는 핵심 지표로 지난 20여 년간 한국 자본시장에서 미래 기업가치를 효과적으로 설명해 왔음

— 영업이익의 질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역시, **지속성・가치관련성・비교가능성 측면에서 K-IFRS 영업이익이 IFRS 18 방식보다 우월한 특성**을 보유

○ 투자자 유용성 저하 가능성: H사 어닝 서프라이즈 논란 사례

— IFRS 18 영업이익은 잔여 접근 방식에 따라, 다수의 1회성 손익 항목(예: 유・무형자산처분손익, 손상차손, 외환손익, 기부금 등)을 영업이익에 포함

— H사의 **사택 토지 처분과 같이 대규모 1회성 손익 항목이 영업이익에 포함됨에 따라, 기업설명(IR) 활동이 충분히 공개적이지 않을 경우 투자자가 지속적・경상적 성과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 여러 기업에서 발생**할 수 있음

○ 영업성과 정보의 보완 기반이 사실상 제한적인 정보환경

— **KOSPI200 기업 중** 경영진이 기업의 **실질적인 성과 측정치**를 자체적으로 정의하여 **자율 공시하는 기업 비중은 4%**에 불과하며, **KOSPI 및 KOSDAQ 전체에서** 재무분석가 2인 이상이 **영업이익 예측 정보를 제공**하는 기업 비중도 **13%** 수준

— 가치관련 정보의 중개 기반이 미흡하고, 기업설명(IR) 활동이 활성화되기 어려운 제약이 존재하여, 영업성과 정보의 보완 기능이 작동하기 어려운 구조

○ 제도적 대응 과제

— **(1) 경상적 영업성과 정보의 명확한 전달**

IFRS 18 적용 이후에도 투자자가 기업의 지속적·경상적 성과를 직관적이고 일관되게 이해할 수 있도록, **경상 영업성과 정보를 명확한 기준과 방식에 따라 식별·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**

— **(2) 비경상 손익 항목 공백기의 최소화**

정기보고서 공시 이전에도 주요 비경상 손익 항목이 투자자에게 시의적절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, **거래소 실적 공시 양식을 구조화·세분화하는 개선이 필요**

— **(3) 실질적 영업성과 정보의 공시 활성화를 위한 유인체계 마련**

경영진이 기업의 실질적인 영업성과 측정치를 고안하여 이를 투자자에게 신뢰성 있고 일관되게 제공하도록 **'경영진이 정의한 성과측정치(MPM)'의 공시 확산을 위한 정책적 유도책** 마련